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669.7	16.3	122,500	2.1	-5.4	-10.3	-4.7	85.4	40.9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635.2	22.0	346,000	1.9	-1.4	-2.7	0.0	4.7	3.9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502.8	6.3	24,700	0.4	-9.5	0.2	11.3	2.3	2.0	0.2	0.2	9.3	9.7
현대건설기계	994.9	10.3	50,500	0.4	0.0	-6.0	18.3	3.2	2.4	0.4	0.3	11.7	13.9
삼성중공업	5,544.0	20.0	8,800	-2.0	-4.0	17.3	18.8	55.5	27.5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210.8	11.4	29,950	0.5	2.4	-6.7	-12.3	10.5	16.9	0.9	0.9	9.0	4.6
현대미포조선	2,384.5	13.3	59,700	0.5	2.2	-6.7	-0.5	12.9	9.3	0.5	0.4	3.6	4.8
한진중공업	N/A	3.6	N/A	N/A	N/A	N/A	N/A	N/A	N/A	N/A	N/A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493.1	20.0	91,800	1.0	17.2	-22.9	-14.2	16.2	15.8	2.2	2.0	14.6	13.3
두산밥캣	3,197.9	25.3	31,900	0.8	2.9	-5.2	1.3	11.7	11.0	0.9	0.9	7.4	7.6
현대로템	1,989.0	4.1	23,400	0.2	9.9	-21.1	-16.0	30.2	20.6	1.3	1.3	4.5	6.3
하이룩코리아	275.0	47.6	20,200	1.5	3.1	10.4	22.8	9.1	8.4	0.8	0.7	8.8	9.0
성광벤드	326.0	16.4	11,400	-0.9	5.1	1.8	0.0	1,007.7	40.9	0.7	0.7	0.1	1.8
태광	302.1	11.8	11,400	-2.1	0.0	-6.6	-2.6	68.1	33.2	0.7	0.7	1.0	2.1
두산중공업	1,024.1	10.1	7,400	0.7	5.7	-17.5	-11.9	-22.2	10.4	0.3	0.4	-0.1	3.9
두산인프라코어	1,592.4	17.4	7,650	1.5	-1.7	-9.8	0.8	5.2	5.5	0.8	0.7	17.7	13.8
HSD엔진	156.0	3.5	4,735	0.7	-1.1	-15.7	-10.3	-12.4	N/A	0.7	N/A	-4.7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543.2	16.0	36,350	-1.1	-1.9	4.6	13.9	53.0	22.9	3.2	3.0	6.1	14.0
한화테크윈	1,623.6	14.7	31,200	0.2	-7.6	-6.2	-4.0	129.3	24.8	0.7	0.7	0.6	2.8
LG넥스원	817.3	8.0	37,150	-1.3	-2.2	-4.0	0.5	85.5	34.1	1.7	1.3	2.4	3.6
태웅	220.1	4.0	11,000	1.9	6.3	0.0	4.8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32.1	4.5	8,600	4.1	-4.7	12.3	11.4	-18.1	20.2	3.2	2.7	-16.2	11.4
한국카본	350.4	14.2	7,970	0.0	-8.4	11.6	13.2	124.1	22.3	1.1	1.1	0.9	5.2

주: 커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사우디 아람코, 현대오일뱅크 2대 주주 올라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오일뱅크 지분 17.0%(4,166만 4,012주)를 사우디 아람코에 1조 3,749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아람코는 지분 2.9%(719만 7,390주)에 대한 출생선도 보유, 행사가전은 현대오일뱅크 IPO 전까지 계약 발표 후 5년간임. 이번 매각으로 현대중공업지주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은 91.1%에서 74.1%로 낮아짐. (EBN)

Chevron to buy Anadarko in \$33bn deal

오일메이저 Chevron은 미국 셰일오일 생산업체 Anadarko Petroleum을 330억달러에 인수함. 인수가격은 주당 65달러로, 종가 대비 39% 프리미엄이 붙은 수준임. Chevron은 이번 인수를 통해 Upstream 포트폴리오를 강화, Permian 지역 채굴권을 통해 셰일오일 투자비중을 높임. 동시에 걸프만 해상에서 LNG도 생산할 예정임. (Upstream)

John Angelicoussis sells vintage suezmax tanker to storage buyer

그리스 선주 John Angelicoussis는 Maran Tankers의 suezmax급 탱커 1척을 연료저장용으로 판매함. 판매한 선박은 1998년에 건조된 16만DWT급 탱커로, 1,150만달러에 매각함. 폐선을 위한 판매가 1,020만달러 대비 프리미엄이 부여됨. 해당 선박은 올해 하반기부터 IMO 2020 규제를 앞두고 연료저장 수요증가에 대응해서 저장용으로 쓸 예정임. (TradeWinds)

현대중공업, 조선 기자재 자회사 매각."지역업체 몰량 이전 우려 불식"

현대중공업은 조선 기자재 자회사인 현대힘스와 현대중공업터보기계를 매각함. 이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앞두고 대우조선 협력업체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알려짐. 선박블록을 주로 제작한 현대힘스를 허큘리스 홀딩스에 약 1,300억원, 대형플랜트 기자재를 생산한 현대중공업터보기계를 팍스톤메니지먼트에 약 800억원에 매각함. (서울경제)

Chevron 'committed to Area 1 timeline' in Mozambique

Chevron은 Anadarko Petroleum 인수와 상관없이 Anadarko가 진행 중이던 Mozambique Area 1 프로젝트를 이어서 진행하겠다고 밝힘. Mozambique 프로젝트는 기존 일정대로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FID(최종투자결정)로 이어질 전망이다. Mozambique 프로젝트는 연간 1,288만톤 규모의 LNG를 생산할 예정임. (Upstream)

세번째 공개매각 성동조선---이번엔 새 주인 맞을까

성동조선해양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6월 7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 받을 계획임. 이번 매각은 3번째 시도로, 원매자를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할 예정임. 본입찰은 6월 13일 진행하며, LOI를 제출한 예비입찰자에게서 인수제안서를 받을 계획임. 다만 매각 성공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 (뉴스1)